

朝鮮時代 나막신에 對한 研究

- 하멜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

金 文 子

水原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Namakshin in Chosun dynasty

- Focused on relation to 'Hamel' -

Kim, Moon-Ja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ersity

Abstract

Namakshin(Wooden clogs), also called keukja, moklee, or mokhye usually have high heels to be worn on rainy days.

According to the "Hamel's Journal and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1653-1666", a book authored by Hendrick Hamel (1630-1692), the 33 crew members of the S/S Sperwer were interned in March 1656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yongsa" (Commandant) in Pyongyang, Kangjin and they were instrumental in making clogs of their native country and sold them to people around the Pyongyang area to earn some extra money.

Pyongyang & Gangjin's wooden shoes are clearly different from those produced in the rest of Korea and bear striking resemblance to traditional Dutch clogs (klompen in Dutch). According to Hamel's narratives, the Dutch captives made wooden shoes for a living in Jeonlla province.

Namakshin in Chosun was divided into 5 type, woman's rubber shoes, Condora, Taesahye, Balmaksin, trough style.

Key words: Dutch clogs(네덜란드 나막신), Hamel (하멜), Kangjin(강진), Namakshin(나막신), Pyongyang(평양)

I. 序 論

조선시대 나무로 만든 신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
한데 격지·목극·각색·목리·목혜·나막개·나모
개·나무신·목신·남신·나막개짜·토막신·긱두기·
미영·남박신·나무신·나무개·나맥신·나무신·나무
개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그런데 이들 나무로 만든
신에 대한 명칭은 크게 일본의 '게다'식의 편평한 신

에 끈을 달아 만든 것과 통나무를 파서 만든 형태로
크게 대별될 수 있겠으나 정확히 이들 명칭중 그것을
구별해서 부른 것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後者에 속하는 것
으로 조선조 말기에 와서 보통 '나막신'으로 통칭되었
던 것으로 최남선은 이를 '나무신'이 와전된 것이라
하였다.¹⁾ 나막신의 재료는 다양하나, 특히 오동나무와
버드나무로 만든 것을 제일로 쳤다. 나무의 속성이 마

르면 터지기 쉬우므로 밑을 녹여 겉에다 칠하기도 하였다.

나막신은 상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신었는데 높은 굽을 달아 진땀에 다니기 좋게 만들어서 비나 눈이 올 때는 좋으나, 무겁고 활동적이 못되어 말을 탈 때나 먼길을 갈 때는 신지 않았으며, 맑은 날에도 많이 신었으며, 굽이 닳으면 다시 새 굽을 바꿔 달아서 신기도 하였다고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나막신을 신고 소리내어 지나가는 것이 오만하다고 하여, 천인이나 젊은이는 양반이나 어른 앞에서는 감히 착용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시대 말기에 나막신은 청빈한 선비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양반은 가난하더라도 상민처럼 짚신이나 미투리 같은 것은 절대로 신지 않았으므로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 가난한 선비가 많이 살았던 남산골의 선비들이 그러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남산골 딸깍발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나막신은 1910년 이후 고무신이 등장하자 차츰 쇠퇴하여 1940년대를 전후하여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²⁾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등장한 나막신은 그 이전에 착용하고 있던 나무로 된 신 류와는 아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제작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본 연구자는 이를 하멜과 그 일행이 조선에 표착한 이후에 네덜란드식 나막신의 제조 방법이 전수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관해 古記錄과 遺物 등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도 네덜란드에서는 나막신은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나막신 제조 공장이 관광투어에 자리잡고 있을 정도이고, 전통 나막신과 나막신을 본뜬 수많은 관광 상품들이 애용되고 있다고 한다.³⁾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나막신 전래와 하멜과의 관계와 네덜란드 나막신에 대해 살펴보고 나막신에 관한 古記錄들을 통해 나막신의 由來를 고찰하고, 나막신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 양식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나막신과 하멜과의 관계를 통해 네덜란드 나막신과의 연관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⁴⁾는 조선시대 나막신에 대한 형태별 분류나 양식에 치우친 것뿐이며 유

래와 관련된 하멜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문헌과 함께 연구한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없는 연구 논문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도임에 틀림없으나 조선시대 나막신의 발생은 하멜과의 연관 선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나막신 전래와 하멜

1. 하멜의 조선생활과 나막신 전래와의 관계

하멜이 우리나라에 표류해온 시기를 전후한 문헌에 나타난 역대 왕들의 재위 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대 선조조(1567~1608년), 15대 광해군(1608~1623년)을 지나 그후 16대 仁祖 (1623~1649)인 1628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Weltevree)가 표착하여 왔는데, 그는 이름을 박연(朴淵, 혹은 朴燕)으로 고치고 병자호란 때 훈련대장 구인후의 휘하에서 대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지도하여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17대 孝宗(1649~1659년)을 지나 18대 顯宗(1659~1674)조에 이르러 1653년에 네덜란드인 하멜과 선원들이 조선에 들어와 1665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666년에는 앞서 1653년에 제주도에 표류해 온 하멜(Hamel, H.) 등 8명이 전라도 좌수영을 탈출하여 억류생활 14년 간의 이야기인 『和蘭船濟州島難破記—하멜漂流記』⁵⁾와 그 부록인 『朝鮮國記』를 저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653년 제주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은 이후 13년 간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귀국하는데 그 가운데는 강진·병영살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생존한 36명의 선원은 제주목사 이원전에게 조사를 받고 서울로 인계되었다. 이 과정에는 조선에 정착하고 있었던 네덜란드인 벨테프레(박연)가 동원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 표류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는 일반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굳이 서울로 데려온 것은 아마도 당시 북벌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경계와 일본으

로의 이송에 대한 불안감, 서양인의 기술 이용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서울에서 훈국의 벨테프레 휘하에 소속되어 군인으로 복무하였고, 그들이 가져온 무기류는 일정한 실험을 통해 조선의 무기 체계에 응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귀국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중 일부가 청나라 사신 행차에 소란을 피우자 조정에서는 강진병영으로 보내 억류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하멜 일행의 전라병영살이는 부임해 오는 병사의 성향에 따라 임무와 지급품에 큰 차이가 있는 불안정한 생활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표류 당시 압류되고 남은 물건을 팔거나 구걸, 행상, 나막신 제작판매 등을 통해 나름대로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 특히 승려들은 하멜 일행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듣기를 좋아했다고 전한다.

하멜 일행의 병영 생활을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당시 연속해 발생했던 기근과 전염병이었다. 그들 일행 가운데도 희생자가 생겼지만 인근 조선 농민들의 참혹한 실상을 하멜은 여러 번 언급하였다. 결국 재정이 궁핍해진 병영에서도 더 이상 이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하자 좌수영, 남원, 순천 등지로 분산 시켰다. 이리하여 하멜 일행의 전라 병영 생활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귀국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자 이들은 1666년 행상에서의 항해 경험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16명중 8명이 일본으로의 탈출을 감행,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탈출은 한때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으나 조선은 이미 현실적 필요성이 상실된 나머지 일행들도 모두 일본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고 하멜 일행의 조선생활도 끝이 났다.

하멜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시기는 孝宗에서 顯宗조(1653-1666년)에 걸친 기간이었는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부터 나막신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멜과 그 외의 네덜란드 선원들은 주둔지 밖의 민간인 집에 체재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가벼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지휘관들은 왕이 그들에게 제공

하는 쌀배급량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제공하지 못할 때, 선원들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이 허용되었다. 확실히 이 어려운 시절에 선원들은 나막신들은 만들었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팔았다.

하멜 연구의 권위자인 전남대 김태진 교수는 하멜과 그 일행이 처음으로 나막신을 만드는 기술을 소개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는 선원들은 어려운 시절을 견디기 위해서 뿐 아니라 탈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과외돈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⁶⁾

이유원이 木鞋(나막신)를 설명하면서 南中에서 처음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南中’이라는 곳은 하멜과 그 일행들이 주로 머물렀던 지역들, 즉 남쪽 전라도 병영, 강진 진영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같은 사실은 후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과도 부합되는데 하멜이 조선을 탈출한 2년 후에 나머지 선원들 중 8명중 7명이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게 된다. 사망했다고 보고된 1명의 선원 Jan Claeszen은 조선에 머무르고 싶어했다고 한다.⁷⁾

그런데 Witsen에 따르면 Jan Claeszen은 조선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가지고 있었던 Sperwer에 승선한 유일한 이가 아니었다. Witsen은 (“Kinderen en wijven, die enige daer getrouwt hadden, verlieten ze.”) 그들은 자식과 부인들을 떠났다. 고 적고 있다.

Hoetink는 조선에서의 이모저모를 기록한 정확한 원문에서 inboorlingen(조선인 이지만 경멸하는 식으로)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 금발머리의 조선인이 Sperwer호 선원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

이 진술은 최근에 前述한 김태진 박사에 의한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⁸⁾

6년간 김태진은 좌초되어 섬에 밀려온 17세기 네덜란드 선원들의 후손들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에 오랜 기간 조선에 머물면서 조선의 여자와 결혼도 하고 혼혈아인 자식들도 낳았다고 한다. 전라도 병영, 순천 그리고 광주의 남동쪽에 있는 남원에 살았던 16명의 네덜란드인들의 후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그는 이곳에 금발에 푸른눈을 가진 많은 한국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들 대부분이 남씨 성을 가졌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남(南)은 한국어로 남쪽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성씨로 세 가지 계보가 있는데 이들 중 2개는 하멜과 그의 동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멜은 그의 표류기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왕의 호위하에 있을 때, 조선의 이름을 받았는데 남씨가 가장 그럴듯하다는 것이다. 김태진은 그가 발견한 적어도 두개의 네덜란드인 성을 가진 이가 묻혀있는 곳도 찾았다. 이미 사라진 성씨인 Yon(네덜란드식 이름인 Jan은 흔히 Yan으로 발음된다)도 있다.

Jan Boonstra는 그의 하멜 표류기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⁹⁾

즉 이같이 당시 네덜란드에서 온 하멜과 그 일행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후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파시킨 것으로 추측되는 당시의 네덜란드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른 예들도 지금까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1) 어느 날 전통적인 네덜란드 선물을 가진 한국가요를 들었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한국가요라고 했다.

(2) 한국말로 혼란스러움을 뜻하는 Hollan Hada라는 말의 어원에서 혼란은 두개의 중국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한국식 발음은 “混”과 “亂”으로 둘 다 혼돈과 무질서를 뜻한다.

(3) 왜 한국인들은 어머니를 Omma(화란어로 할머니를 Oma), 형을 Oppa(화란어로 할아버지를 Opa)라 하는데, 한국말로 영리함을 뜻하는 말은 toktok인데, 네덜란드인은 한국인이 toctoc(화란어로는 바보)한 행동을 했을 때 똑똑 이라 말하고 그 한국인에게는 그 말이 영리하다는 뜻이라고 속이지 않았을까? 아마 유사한 배경을 지닌 단어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것이 언어전문가들에게는 흥미 있을 것이다.

(4) 전라도의 병영, 강진사람들은 굽이 높진 않지만 네덜란드인이 하던 식으로 나뭇조각으로 만든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

(5) 이곳에서는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관개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나막신의

형성에 있어서 이미 조선과 일본에 나무로 만들어진 신이 존재했을지라도 이들 ‘게다’식의 나무신과 달리, 지금도 네덜란드 고유의 신으로 인정되는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독특한 형태의 네덜란드식 나막신이 전라도 병영, 강진 주변을 그 진원지로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이같이 하멜과 그 일행이 머무르던 시기와 그 이후에도 네덜란드 고유 양식의 나무를 파서 만드는 나막신의 유형이 우리나라 고유의 신들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만드는 형식은 네덜란드식이지만 그 형태는 우리 고유의 당혜나 태사혜, 발막신등을 본떠서 만든 것이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2 네덜란드의 나막신

사람들은 ‘네덜란드’ 하면 대표적으로 풍차와 튜립, 치즈 그리고 민속의상을 입은 깜찍한 인형 등을 떠올린다. 나무를 깎아 만든 끝이 뾰족한 신을 신은... 사실 나막신(Klompen)은 중세시대 초부터 모든 유럽 사람들이 즐겨 신었던 신발이다.¹⁰⁾ 질퍽한 흙이나 저저분한 것들로 양말이나 바지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무거운 기계나 낫, 도끼, 가축의 발갈질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이 가죽신들을 신는 동안 네덜란드인들은 나막신을 착용했다. 500년 동안 나막신은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¹¹⁾ 네덜란드형 나막신(Dutch wooden shoes)의 원형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¹²⁾ 채색을 가한 것은 1550년에 이르러서였다. 나막신 제조는 18세기부터 생산의 기계화로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나막신의 제조는 주로 버드나무나 포플러 나무로 만들어졌다. 1918년까지 그들은 거의 수공업으로 생산했으나 점차 기계적인 공업으로 발달하였다. 그들은 이들 나무가 자라는 장소에서 제조되었다. 신은 도끼로 모양을 대강 다듬은 후에 마무리가 되어졌다.

현재는 보통 채색되어진다. 이것은 쉽게 손질할 수 있게 하고, 그리 쉽게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한다. 이

나무신은 실제로 착용되고 또한 기념품으로 사랑 받는 물건이다.

나막신의 디자인중에서 쉽게 구별이 되는 2가지의 중요한 형태, 낮은 굽과 높은 굽의 나막신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주로 수입이 적은 계층에서 나막신을 주로 착용했다고 한다.¹³⁾

또한 일반 신발보다 훨씬 신고 벗기가 편리하며,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 땀을 흘리게 되더라도 통풍이 잘되는 장점이 있다. 이 나막신이 특히 네덜란드에서 애용되었던 이유는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 늘 질퍽거리는 이곳 토지에 적합했고, 나막신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버드나무와 포플러나무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보기보다 가볍고 아주 튼튼해서 지금도 이 나막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서는 평범한 것이므로 시선을 받지는 못한다. 나막신을 신기 위해서는 양털로 만든 아주 두꺼운 나막신용 양말을 따로 신어야 하며, 신발 사이즈도 보통 자신의 발보다 두 치수 정도 크게 신어야 한다. 그저 나무를 깎아 만들면 되려니 하겠지만 제대로 나막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과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버드나무나 포플러나무를 큼직하게 자른 다음 발 사이즈에 맞게 신발모양으로 깎은 후 구멍을 내어서 안쪽을 가공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 신발을 똑같이 만드는 것조차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마무리 작업을 한 후에도 3-4주 그늘에 말린 후 문질러 마지막 손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근한 끈기를 요하기도 한다.

지금이야 손으로 직접 만드는 나막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졌지만 수제 나막신을 만드는 사람들을 '아티스트'로 부르는 데는 마지막 과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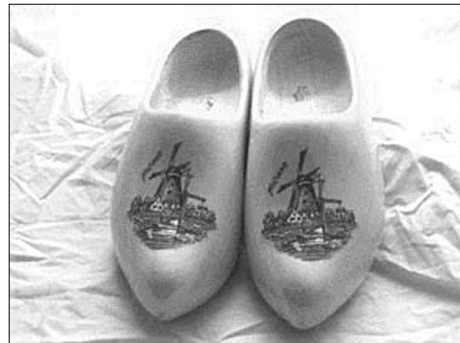
<그림 1> Dutch wooden shoes (1940-50년)



<그림 2> The Sueters shoe without paint, pure natural



<그림 3> classic Sueters shoe



<그림 4> The Sueters shoe with a real Dutch design

'장식'도 한몫 하지 않나 싶다. 나막신 장식기술을 전수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은 직업보다도 오히려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아무 무늬도 없는 나막신은 농부나 정원사, 트럭 운전사들이 막노동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용이고, 대부분은 그림을 그려 넣거나 칼로 조각을 새겨 장식을 해서 신었다.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300만개의 나막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정원사들만이 일부 작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외국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가고 있다.¹⁴⁾

20세기중반의 나막신의 유품(그림 1)은 지금의 네덜란드 전통 나막신(그림 2, 3, 4)¹⁵⁾과 형태상의 차이가 없이 거의 고유의 양식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III. 나막신에 관한 古記錄 및 由來

조선시대의 나무로 만든 신류에 대한 古記錄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翊(1629-1690)의 『星湖僿說』¹⁶⁾上卷二 萬物門 木履條에 보면

…나는 평시에 騎乘하거나 遠出하지 않을 때는 屐을 사용하였는데, 木性이 炸裂하기 쉬우므로 玩孚의 蠟屐에 따랐으니, 이것은 蠟을 녹여 부어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있어, 나막신에는 蠟을 녹여 부어 나무의 갈라지고 터지는 것을 막도록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⁷⁾

任相元¹⁸⁾(1638-1697) 『郊居瑣篇』이나 『恬軒瑣篇』에서 …옛날에는 屐이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李玄錫(1647-1703)의 『遊齋集』¹⁹⁾에

…壬辰 이전에는 法俗이 明簡하여 선비된 자는 걸어다니고 감히 말을 타지 않았으며, 그 밭에는 모두 屐이라는 것을 신었다. 그것은 신기 쉬움과 구하기

쉬운 때문이다. 따라서 선비의 襪制는 반드시 그 엄지 발가락을 따로 한 것이 달랐다. … 소위 屐은 木履와 유사하면서도 四方울이 없어서 그 모양이 도마와 같았다. 앞의 발가락이 닿는 곳은 끈으로 갈구리를 만들었다. 옛날의 선비의 신은 이것뿐이었다. 요즈음의 선비는 나갈 때는 말을 타고 靴을 신는다…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²⁰⁾

…木履은 시골의 淸貧한 선비가 신는 것이며 이미 이밖에도 皮鞋·麻屨가 있었다. 木履을 着하는 것은 雨晴·燥濕에 通行하는데 오래 견디고 헤어지지 않는 것을 취해서 이며, 木履은 履의 최고의 것이다.

木履은 중국에서 성행한 것은 푸에서부터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이미 이 製가 있었으나 다만 草鞋·皮履만을 신어 왔다. 선조조 壬辰前 이것을 上下가 通着한 바 있었다. 그러나 賤者나 어린자는 尊貴한 이 앞에서는 감히 착용할 수 없었으니, 보행에 있어 절름거리리는 것이 거만하게 보여 嫌惡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李晩永이 1798년(정조 22)에 편찬한 『才物譜』²¹⁾에는 “屐·木履·나무신·木履有足”이라는 기록이 있다.

劉淑(1827-1873)이 20세때인 1836년 그린 작품인 大快圖²²⁾(그림 5)에는 나막신을 벗어 놓은 그림이 보이고 있다.

또한 19세기말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평생도(그림 6)²³⁾에도 아동들의 나막신 착용 모습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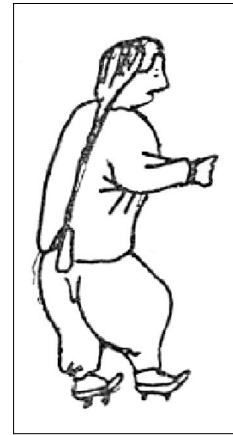
李緯가 1844년 편찬한 『四禮便覽』²⁴⁾에는 당시 童子가 수시로 신음으로써 대용해도 무방하며 雨天時에 진신으로서뿐 아니라 마른신으로도 신었다는 기록이 있다.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²⁵⁾에 …宣祖 庚子年間에 木鞋(나막신)가 南中에서 처음 나왔으며, 중국에서는 두루 사용하고 있다… 고하여 나막신이 주로 남중에서 나왔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들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屐·履·木履·木履·木鞋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屐', '履', '木履'는 일본의 '게다'와 같은 평평한 나무도마 형의 위에 끈을 달아 만든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조조



<그림 5> 대괘도(유숙)



<그림 6> 평생도 (온양박물관)

임진 전에 통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木履’, ‘木鞋’로 표현 된 것은 ‘게다’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나무된 신 즉 지금의 ‘나막신’ 모양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고문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나막신의 등장연대가 선조조(1567-1608년)라는 것은 그후에 대부분의 문헌들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나막신의 제조연대와 많은 차이가 난다. 두 책 모두 19세기 중후엽에 쓰여진 것으로 정확한 나막신의 발생 연도는 불확실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前述한 나막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괘도(그림 5)가 그려진 년대도 1836년이므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나막신의 발생 연도는 선조 대보다는 후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멜과의 연관관계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IV. 조선시대 나막신의 樣式

나막신은 기존의 우리나라 신발 형태를 본떠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유물로 남아 있는 나막신의 형태가 太史鞋나 唐鞋등의 가죽신들의 형태와 유사하며 현재의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네덜란드형 나막신과는 그 구조가 약간 상이

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나막신이 만들어질 당시의 형태는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전형적인 네덜란드형이었을 것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멜 일행이 만들었다면 정확한 형태보다는 그 대략의 만드는 방법을 모방했을 뿐 그 형태는 우리 고유의 신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아울러 후에 여러 장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신 밖으로 장식물을 가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세기 초의 흑백 사진 속에서도 비 오는 날 서당 가는 소년이 신은 나막신의 모습과 장에서 나막신을 파는 모습과 그 주변 사람들의 나막신 착용 모습²⁷⁾도 볼 수 있다.

이같은 나막신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착용이 허용되었는데, 굽이 높아서 비 올 때는 좋았으나 무겁고 활동적이 못되어 騎馬時나 遠行時에는 신지 않았다 한다.

유물들을 통해본 우리나라 나막신의 종류는 그 나누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굽의 형태, 운두와 올 전체의 형태 등을 통해 분류 할 수 있다.²⁸⁾ 그런데 원래의 나막신의 형태도 네덜란드식에서 우리의 고유 신의 형태를 본 따 변형된 것이라고 보아 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고유의 신의 형상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분류하여 그 양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막신의 구체적인 양식은 굽, 올, 운두, 코, 뒤꿈치,

무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²⁹⁾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분류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우선 네덜란드식 나막신에서 유래한 조선시대 나막신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자 대략적으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5가지 양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기준은 전체적인 나막신의 울과 운두, 코, 뒤꿈치 형태를 중점적으로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굽의 형태는 처음 달은 형태와 사용후 닳아진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였다. 무늬는 그 예가 많지 않아서 분류에는 넣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형태구분이 뚜렷이 되는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여자용 唐鞋와 雲鞋 같은 여자고무신형³⁰⁾, 둘째, 여자 고무신형 보다 더 앞코와, 뒤꿈치부분이 위로 올라간 곤돌라形, 셋째, 남자 太史鞋와 같은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太史鞋形, 넷째, 太史鞋形과 달리 무늬가 없는 발막신形, 다섯째, 앞뒤가 편평한 구유形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신 굽의 형태에 따라 굽이 八字形으로 붙은 것과 간격이 벌어진 형, 굽이 거의 없는 형 등으로 나눌 수 있기는 하나 여러 문헌에서도 八字形은 여자용, 간격이 벌어진 형은 남자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분류에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별 분류만으로 나누어 여자고무신形, 곤돌라形, 太史鞋形, 발막신形, 구유形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여자고무신形

<그림 7>은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품으로 여자고무



<그림 7> 여자고무신形 -숙대박물관 소장

신形 중에서도 雲鞋形 양식을 하고 있는데 신코는 둥글게 휘어져서 일반적인 나막신의 양식을 따랐다. 신 울은 붉은 색이고 코와 뒤축에는 수박색으로 선무늬를 돌렸으며 높은 굽을 하고 있다. 크기가 14.4cm로 여아용이다.³¹⁾

<그림 8>는 광주민속박물관 소장품으로, 전형적인 여자 고무신 형태의 나막신으로 길이 30cm, 너비 9cm로³²⁾만들어져 있으며 八字形의 굽이 달려 있다. 나무결의 모양이 굽까지 잘 나타난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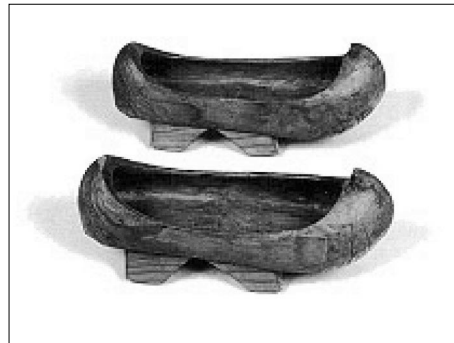
其1은 육군사관학교 소장품으로, 길이 27cm, 너비 10.8cm의 나막신으로 비 올 때 신는 신이다. 잘 말린 대추나무를 꺾로 파서 만들었으며, 八字形 굽을 높게 만들어 붙여 진흙으로부터 보호했다.³³⁾

其2, 3은 안동민속박물관 소장품으로 하나는 길이 29cm, 너비 10.7cm, 높이 11.7cm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29cm, 너비 10.7cm, 높이 11.7cm의 나막신으로³⁴⁾ 나무결이 생생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其4는 단국대 박물관 소장품으로 길이 25.6cm, 너비 9.1cm, 높이 7.6cm로 통나무를 깎고 까귀로 후벼서 만든 신이다. 만든 다음 물이 스미지 않도록 기름칠을 하였다. 뒤꿈치 쪽으로 높은 세모꼴 굽(八字形)을 두어 빗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2) 곤돌라形

<그림 9>는 고대박물관 소장품으로 비가 올 때 신던 나무로 만든 신으로 길이 33cm에 높이16cm의 한 짝이다. 이 유물은 재리(얼음 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림 8> 여자고무신形-광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9> 곤돌라形-고대박물관 소장



<그림 10> 곤돌라形-광주민속박물관 소장

나막신 굽에 박은 큰 징)를 달고 있어 빙상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은 광주민속박물관 소장품으로, 前者와는 그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히 굽이 운두와 함께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길이 30cm, 너비 11cm이다.

其1은 만공스님 유품으로 길이 29cm, 너비 9cm로 경허, 만공스님기념관 소장품이다.³⁶⁾ 거칠게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며 八字形의 굽을 달고 있다.

其2는 강원대 소장품으로, 길이 28.5cm, 너비cm, 높이 14.3cm로써 운두에 線紋이 새겨져 있고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겉면에 칠을 한 것으로 보인다. 八字形의 굽을 달고 있다.

其3은 길이 26cm의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으로 거칠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八字形의 굽을 달고 있다.

其4는 부산시립박물관 소장품으로 길이 31cm이고³⁶⁾

八字形의 두꺼운 굽을 달고 있는데 나무 결이 물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나타나 있다.

其5는 전주대 소장품으로 길이 27cm 이고³⁷⁾ 나무결의 모양이 其2의 강원대 소장품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이며, 간격이 떨어져 있는 八字形의 굽을 달고 있다.

3) 太史鞋形

<그림 11>는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품으로 휘어진 코와 높이 올라온 뒤축에 각기 태사혜와 동일한 선 무늬를 부조로 돌렸는데 박음질의 감각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밑부분 까지도 鋸齒文帶를 돌려 꾸몄는데 나막신으로서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의장으로 꾸민 신이다 길이는 27.5cm이다.

<그림 12>은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으로 길이는 26.5cm이고 높이는 17.5cm이며 前者와 거의 비슷한



<그림 11> 太史鞋形-숙대박물관 소장



<그림 12> 太史鞋形-경기도 박물관 소장

형태로 선 무늬와 밑부분의 鋸齒文帶장식까지도 동일 하나 굽이 前者에 비해 매우 높다.

4) 발막신形

〈그림 13〉은 길이 27cm의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으로 무늬가 없는 발막신 형태로 굽이 거의 달려 있지 않은데 사용해서 닳아 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으로 길이는 24.5cm, 너비는 7.5cm로 울을 따라 線文을 넣은 것으로 보이며 안과 밖이 색이 다른 것으로 보아 겉에 밀을 녹여 겉에다 칠해서 터지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이며, 八字形의 굽이 달려 있다.

其1은 또 다른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으로 박달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28cm, 높이 9.3cm로 형태는 前者의 〈그림 12〉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나 문양이 없는 발막신형이다. 〈그림 13〉과 다르게 八字形 굽이 높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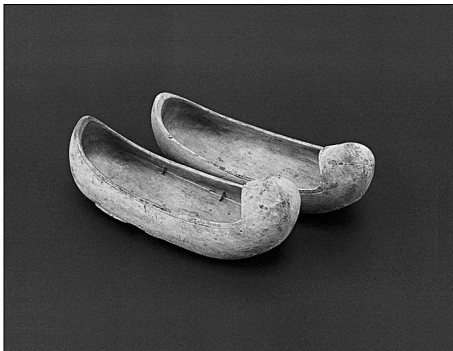
달려 있다.

5) 구유形

〈그림 15〉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으로 길이는 16.5cm, 너비는 6.5cm로 크기로 보아 어린이용으로 보인다. 굽이 거의 없이 납작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림 16〉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³⁸⁾으로 前者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나 얇은 굽이 앞뒤에 멀리 떨어져 달려 있는 점이 다르다.

이상의 5종류의 나막신의 형태 분류는 유물에서 본 것은 정확히 분류되는 것이 아니며 조금씩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본 나막신 만드는 방법은 네덜란드식의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방법을 고수했겠지만 장인들의 솜씨나 사용용도 등의 필요성에 의해 조금씩 그 형태가 다르게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참조〉



〈그림 13〉 발막신形-경기도 박물관 소장



〈그림 14〉 발막신形-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5〉 구유形-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6〉 구유形-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표 1〉 조선시대 나막신의 양식 분류

양식	번호	〈그림〉	크기(cm)			굽 형태	소장	비고
			길이	너비	높이			
여자고무신 形	1	〈그림 7〉	144			八字形	숙대박물관	아동용(여아용)
	2	〈그림 8〉	30	9		八字形	광주민속박물관	
	3	其1	27	10.8		八字形	육사박물관	
	4	其2	29	10.7	11.7	八字形	안동민속박물관	
	5	其3	29	10.7	11.7	八字形	안동민속박물관	
	6	其4	25.6	9.1	7.6	八字形	단국대박물관	
곤돌라 形	7	〈그림 9〉	33		16	八字形(재리)	고대박물관	
	8	〈그림 10〉	30	11		八字形 통굽	광주민속박물관	
	9	其1	29	9		八字形	경허, 만공스님기념관	
	10	其2	28.5	10.5	14.3	八字形	강원대박물관	
	11	其3	26			평굽	경기도박물관	
	12	其4	31			八字形	부산시립박물관	
太史鞋 形	13	其5	27			八字形	전주대박물관	
	14	〈그림 11〉	27.5			八字形	숙대박물관	
발막신 形	15	〈그림 12〉	26.5	17.5		八字形	경기도박물관	
	16	〈그림 13〉	27			八字形	경기도박물관	
	17	〈그림 14〉	24.5	7.5		八字形	국립민속박물관	
구유형	18	其1	28		9.3	八字形	경기도박물관	
	19	〈그림 15〉	16.5	6.5		평굽	국립민속박물관	아동용
	20	〈그림 16〉				간격이 벌어진 굽	국립민속박물관	

〈표 1〉의 결과 나막신은 남녀노소 모두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크기에 있어서도 어른용의 경우 남녀 구분이 잘 안되고 있다. 길이는 대략 25~30cm정도이며 너비도 보통 8~11cm로 이 크기는 지금의 어른 발의 크기로 보더라도 매우 큰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발 크기가 이보다 더 작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보아 나막신의 착용 방법이 네덜란드에서와 같이 두꺼운 양말(우리의 경우 버선)을 신고 신어야 발이 편하므로 실제 발 크기 보다 매우 크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으리라 생각된다.

굽은 원래 일반적인 네덜란드식 나막신(그림 1, 2, 3, 4)처럼 〈그림 10〉에서 보이는 것같이 통나무를 파서 한꺼번에 신과 굽을 붙여 만드는 것이 원 양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후에 타 유물에서 보는 것처럼 굽을 따로 달아 닳게 되면 굽만 따로 새것으로 교환해 붙이는 것으로 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굽의 형태는 앞뒤가

붙어 있는 八字形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나 〈그림 16〉에서와 같이 앞 뒤 굽이 멀리 떨어진 형태도 있었다. 굽 높이는 대략 7.6~16cm 정도인데 특히 〈그림 9〉에서 보이는 빙상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재리를 부착한 16cm의 높은 굽은 눈이 많이 쌓인 경우에도 걸어 갈 수 있게 아주 높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V. 結 論

이상으로 조선시대 나막신의 由來 및 하멜과의 관계 그리고 양식분류를 살펴보았다.

나막신은 상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신었는데 굽이 높아서 비나 눈이 올 때는 좋으나, 무겁고 활동적이 못되어 말을 탈 때나 먼길을 갈 때는 신지 않았다 한다.

우리의 나막신은 17세기 후반 하멜과 그 일행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옴으로써 네덜란드식의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나막신 제조 방법이 전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네덜란드 나막신은 2가지의 형태, 낮은 굽과 높은 굽의 나막신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주로 수입이 적은 계층에서 나막신을 주로 착용했다고 한다. 또한 일반 신발보다 훨씬 신고 벗기가 편리하며,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 땀을 흘리게 되더라도 통풍이 잘되는 장점이 있다. 이 나막신이 특히 네덜란드에서 애용되었던 이유는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 늘 질퍽거리는 이곳 토지에 적합했고, 나막신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버드나무와 포플러 나무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보기보다 가볍고 아주 튼튼해서 지금도 이 나막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평범한 것이므로 시선을 받지 못한다. 나막신을 신기 위해서는 양털로 만든 아주 두꺼운 나막신용 양말을 따로 신어야 하며, 신발 사이즈도 보통 자신의 발보다 두 치수 정도 크게 신어야 한다.

이같은 나막신은 조선시대 당시 네덜란드에서 온 하멜과 그 일행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후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파시킨 것으로 추측되는 당시의 네덜란드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른 예(가야 선율, 관개시설, 언어 등)와 함께 전라도의 병영, 강진사람들은 굽이 높진 않지만 네덜란드인이 만들던 식의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나막신의 형성에 있어서 이미 조선과 일본에 나무로 만들어진 신이 존재했을지라도 이들 '게다' 식의 나무신과 달리, 지금도 네덜란드 고유의 신으로 인정되는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독특한 형태의 네덜란드식 나막신이 전라도 병영, 강진 주변을 그 진원지로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된다.

만드는 방법은 전수되었지만 조선시대 후기의 유물들을 보면 그 양식은 우리의 고유의 신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일반적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같이 하멜과 그 일행이 머무르던 시기와 그 이후에도 네덜란드 고유 양식의 나무를 파서 만드는 나막신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전수

되었지만 조선시대 후기의 유물들을 보면 그 양식은 우리의 고유의 신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일반적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만드는 방법은 네덜란드식이지만 그 형태는 우리 고유의 당혜나 태사혜, 발막신등을 본떠서 만든 것이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조선시대 나막신의 양식은 지금의 여자고무신과 같은 모습의 여자고무신形, 여자고무신형 보다 더 앞, 뒤가 올라간 곤돌라形, 남자 太史鞋와 같은 줄무늬가 들어 있는 太史鞋形, 太史鞋形과 좀 다르게 무늬가 없는 발막신形, 앞뒤가 편평한 구유形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막신은 그 크기에 있어서도 어른용의 경우 남녀 구분이 잘 안되고 있다. 길이는 대략 25~30cm정도이며 너비도 보통 8~11cm로 이 크기는 나막신의 착용 방법이 네덜란드에서와 같이 두꺼운 양말(우리의 경우 버선)을 신고 신어야 발이 편하므로 실제 발 크기보다 매우 크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으리라 생각된다.

나막신 굽은 네덜란드식 나막신처럼 통나무를 파서 한꺼번에 신고 굽을 붙여 만드는 것이 원 양식이나 후에 굽을 따로 달아 닳게 되면 굽만 따로 새것으로 교환해 붙이는 것으로 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막신의 형태 분류보다는 우리의 나막신의 由來 및 하멜과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동아출판사백과사전부(편),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6권, 동아출판사, 1985, p. 495.
- 2) http://www.ocp.go.kr:9000/t_kwd_search/cgi/new_frame.cgi
- 3) 이정훈, 세계의 명품-네덜란드 전통 나막신, 스키아뉴스52호, 2002, 4, 21.
- 4) 김지희, 우리나라 신에 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88.

- 남상우, “나막신에 관한 소고”-기원, 종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사대학보, 22, 1987.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사, 1974.
- 5) 하멜 표류기는 하멜 일행이 본국(네덜란드)에 도착한 후 17세기중엽 『조선왕국 건문록』 『화란인 제주도 난파기』 등의 이름으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동시 출간되었다. 그 후 로테르담에서는 2판을, 1670년에는 프랑스에서 3판을, 1672년에는 독일어판, 영어로는 1704년 출판되는 등 유럽인들에게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처음 서양인들에게 소개한 책이다. 선원 64명 중 36명 생존하여 처음 1653년 표착되어 제주도-서울생활- 1656. 3월 병영 생활 시작하여 1663년 여수, 남원, 순천 분산 수용 되었다가 1666. 9. 4 여수에서 탈출하게 될 때까지의 일지 형태 내용들이고, 또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상태- 왕실, 병사, 관직, 세금, 형벌, 종교, 서민생활-결혼, 도량형, 언어, 문자, 계산법 등이 자세히 설명 되어있다.
- 6) http://www.hankooki.com/kt_op/200204/t2002041816420248110.htm
- 7) Nicolaes Witsen이 쓴 1705년 Noorden Oost Tartarije(North and East Tartary) 2판 1부 53쪽에는 그당시 Jan Claeszen은 살아 있다고 적혀 있다. 그는 조선에 머무르고 싶어했다. 'Hij was aldaer getrouwt en gaf geen hair aen zijn lyf meer te hebben dat na een Christen of Nederlander geleek.(그는 거기서 결혼도 했고 기독교인이나 네덜란드인 [Dutchman]으로 보이는 어떤 흔적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 8) <http://www.henny-savenije.demon.nl/hollandk13.htm>
- 9) <http://www.henny-savenije.demon.nl/hollandk13.htm>
- 10) <http://dobong.fgtv.org/holy2.htm>
네덜란드에서는 산타가 흰말을 타고 온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16세기부터 어린이들은 흰말의 먹이 감으로 나막신에 마른 풀과 홍당무를 담아 창문 앞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보답으로 산타는 작은 선물을 나막신 속에 넣어 주었다. 이 풍습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나막신 대신 양말로 바뀌었다.
- 11) <http://www.euronet.nl/users/netty/story.htm>
- 12) <http://www.clogsandwoodenshoes.com/>
- 13) www.dutchmarkets.org
- 14) http://www.skynews.co.kr/newsky/main/052/pl_052.htm
- 15) <http://pages.karenlewisantiques.com/5067/PictPage/1433731.html#images>
- 16) 평소에 기록해 둔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1740년경에 집안 조카들이 정리한 것으로, 30권 30책의 규장각 소장본 등 여러 필사본으로 전해오다가 수차례 영인본으로 간행되었고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해 한글 번역 본도 간행되었다. 주제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223항으로 구성된 『天地門』은 천문과 자연과학, 자연지리 및 역사지리에 대한 내용이고, 368항의 『萬物門』은 의식주의 생활 문제와 화초·화폐·도량형·기구 등을 수록하였다. 『人事門』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학문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정치·경제·인물·사건·사상에 대한 990항목이 실려 있다. 『經史門』은 유교와 역사에 대한 1,048항목이, 『詩文門』에는 중국과 조선의 시와 문장에 대한 비평 378항목이 실려 있다. 형식적 특징은 백과전서적인 포괄적 구성에 있다.
- 17)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p. 389.
- 18) 본관 倭川. 자 公輔. 호 염헌恬軒. 시호 孝文.

1660년(현종 1) 생원이 되고 1665년 별시문과에 장원, 司書를 지냈다. 1671년 용강현령이 되었다가, 1673년 교리로 승진되었다. 1679년(숙종 5) 淸風府使 때 문과증시에 급제, 1684년 대사간이 되었다. 1688년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 도승지 등을 지내고 이어 공조판서·형조판서를 지냈다. 그 후 우참찬·한성부판윤을 거쳐 좌참찬을 지내고, 1697년 다시 우참찬이 되었다. 저서에 『恬軒集』, 『郊居塚篇』 등이 있다.

- 19) 조선 숙종 대의 문신 유재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의 시문집으로 숙종 연간에 발행되었으며 고활자본(후기 목활자). 24권 8책. 규장각도서. 고려대학 도서관 소장. 서문과 발문이 없어 간행 경위는 미상이다. 24권 가운데 11권이 시로서 비중이 매우 높는데, 坡西錄·隋城錄 등 저자가 거쳐 다닌 곳을 중심으로 제목을 붙여 놓은 것이 특징적이다. 당시 양반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우계·갑회·종계·종반경회·기로연 등의 모습을 기록한 序 등은 당시 사회 연구의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강화도의 축성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봉수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학문의 실용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졌다.
- 20) 조선 후기의 학자 李圭景이 쓴 백과사전류의 책. 필사본. 60권 60책. 규장각도서. 19세기 중엽에 편집되었다. 원래 60책보다 더 거질(巨帙)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崔南善에 의해 보관된 60책이 규장각에 소장되었다. 역사·경학·천문·지리·불교·도교·西學·禮制·災異·문학·음악·음운·병법·광물·초목·어충·의학·농업·광업·화폐 등 총 1417항목에 달하는 내용을 辨證說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은 奎章閣檢書官을 지낸 조부인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21) 조선 후기의 학자 李晩永이 1798년(정조 22)에 편찬한 필사본. 8권 4책. 규장각·장서각 도서. 표지는 《萬物譜》로 되어 있다. 天·地·人의 三才와 萬物의 옛 이름 및 별명 등을 모아서, 춘·하·추·동의 4集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권1은 太極·天譜·地譜, 권2~5는 人譜, 권6~8은 物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하나하나에 각주를 붙이고, 필요에 따라 한글 해석도 달았으며, 한국 역대의 制度와 文物도 실었다.
- 22) 이 작품은 한양의 四大門중 동쪽에 있던 광희문(光熙門 일명 수구문(水口門))의 남쪽에서 벌어진 유희장면을 그렸다고 전한다. 화면 중앙에 벌어진 두패의 씨름(혹은 태권)판과 이를 둘러싸고 구경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렸다. 씨름판을 중심으로 우상 단에는 성벽이, 나머지 상하면에는 山水배경이 채워져 있는데 山水와 인물의 상관관계는 썩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이런 점은 성벽을 묘사한 부분의 경직된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씨름판을 둘러싼 다채로운 인물들의 모습, 자세, 복장은 조선말기 풍속화중 力作이라 할 만하다. 나막신을 벗어 부치고 長竹을 문 노인, 옛 파는 총각, 술파는 노점상, 성벽 구석에 방노하는 소년 등이 모두 재미있게 그려졌다. 좌상 단에 “大快圖 丙午 萬花方暢時節擊壤世人寫於康衢煙月”이라는 題款이 있어 유숙(劉淑, 1827-1873)이 20세때인 1836년 그린 작품으로 보인다.
- 23) 남상우, “나막신에 관한 소고”-기원, 종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사대학보 22, 1987, p. 25.
- 24) 조선 후기의 학자 李緯가 四禮에 관하여 편찬한 책으로 목판본. 8권 4책. 1844년(헌종 10)에 李光正이 간행. 그 후 1900년(광무 4)에 黃澍

- 秀·池松旭이 증보·증간하여 『增補 四禮便覽』이라 하였다. 이재의 禮學에 관한 깊은 조예를 토대로, 朱子の 『家禮』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엮었다. 따라서 이 책이 간행되어 보급된 후 모든 예가 이 책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다.
- 25) 필사본. 39권 33책. 규장각도서. 1871년(고종 8) 조선과 중국의 사물에 대하여 고증한 내용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저자의 해박한 식견을 펼쳐놓은 저술로서, 經·史·子·集을 비롯하여 조선의 典故·역사·지리·산물·書畫·典籍·시문·가사·정치·외교·제도·宮中秘史 등 각 부문을 사료적인 입장에서 백과사전 식으로 엮어 놓았다
- 26)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p. 389.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편),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p. 246.
김영숙(편저),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9, p. 99.
- 27)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 (속) 생활과 풍속, 서울: 서문당, 1987, p. 25 '나막신장수', p. 78 '서당 가는 소년'.
- 28) 김지희, 우리나라 신에 대한 연구, p. 58
남상우, “나막신에 관한 소고”-기원, 종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pp. 30-31.
- 운두의 形에 따라 곤돌라형, 발막신형, 月刀형, 고무신형, 구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형태의 차이가 불분명하다.
- 29) 남상우, “나막신에 관한 소고”-기원, 종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p. 26
- 30) 개화기 이후에 발생한 고무신은 여자용은 당혜나 운혜의 형태를 본떠서 만들었고 남자용은 주로 태사혜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여자 고무신형이라 함은 나막신의 형태가 당혜나 운혜와 같은 무늬와 관계없이 형태만을 지칭한다 하겠다.
- 31) <http://www.women.or.kr/culture/clothes/shoes/shoes.html>
- 32) http://www.science.go.kr/hot_db/sun/images/na.htm
- 33) http://www.ocp.go.kr:9000/t_kwd_search/cgi/new_frame.cgi
- 34) <http://adfm.or.kr/kor/sch/sch.htm>
- 35) <http://dream.celab.or.kr/~bunny077/d4-5.htm>
- 36) http://museum.busan.kr/search/search_01.jsp
- 37) <http://museum.jeonju.ac.kr/kor/sch/sch.html>
- 38) http://www.ocp.go.kr:9000/t_kwd_search/cgi/new_frame.cgi
-
- (2003년 4월 28일 접수, 2003년 5월 24일 채택)